

2023년 4월에 파견와서 2024년 2월말에 돌아가는 1년 교환학생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학기가 지난 이후 두 번째 학기의 경우 대부분 생활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훨씬 편합니다. 수강신청도 1학기 때는 유학생 대상 수업을 많이 들었지만 2학기에 들어서고 나서는 현지 일본인 학생들이 듣는 수업 위주로 들었습니다. 특히 일어일문전공이신 분들은 일본 문학 수업 혹은 오차노미즈 대학 글로벌文化코스 학생들이 듣는 수업들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다문화, 일본어 교육에 관련한 내용이라 본교 학점 인정 받기 좋습니다.

일본의 경우 학기가 10월시작,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잠깐의 신년방학, 그리고 1월 말에 학기가 끝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1월말 학기가 끝나고 레포트 등 과제를 2월 초중반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국 대학들은 3월에 학기가 시작하기 때문에 2월말 전에 대부분 한국으로 귀국하는 편입니다. 일본의 다른 대학들의 경우 학기가 끝나자마자 기숙사를 비우라고 하는 것도 봤는데 오차노미즈의 오토와칸의 경우 기본적으로 3월 말까지 계약을 하니 한국 대학 휴학 혹은 졸업 예정이라 3월에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면 3월 한달까지 일본에서의 생활을 즐기시다 오셔도 됩니다.

오차노미즈 대학에서 1년 교환학생을 한 것을 정말 만족하고 돌아갑니다. 학교 선택도 (위치적으로 이케부쿠로 근처, 교환유학생이 사용하는 기숙사가 신축) 너무 좋았고 1년 파견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2학기 들어서고서는 일상이 익숙해져서 약간 늘어지고 더 이상 초반의 설렘은 없었지만 그만큼 앞으로 일본에서 취직 혹은 장기간 거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교환예정이신 분들은 일본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꼭 가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어 사용, 일본의 직장 문화 등 다양한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